



## 음주운전

술로 인한 문화적 차이로 법률상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제법 많다. “한잔 술쯤이야”라고 시작한 음주 운전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코 다칠수 있다.

음주운전은 1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는 교통 형사 사건이다. 흔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중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잡히면 음주테스트를 거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이유는 음주 테스트를 거부하면 혈중알콜농도 (BAC)를 측정할수 없기에 무혐의 처리가 될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과거의 운전기록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검사측은 과거 운전기록을 통해 형벌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를 언급하고, 다음 호에는 연속범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음주운전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BAC 수치가 0.07 이상이면 DWI (Driving While Intoxicated)로 고발되고, 0.08 이상이면 DUI (Driving Under Influence)로 더 심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버지니아는 BAC 수치가 0.08 이상이면 무조건 DWI 가 된다. 버지니아에서 BAC 수치가 0.08-0.14 일 경우에는 1년까지의 징역형과 1년간의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알코올 안전 행동 프로그램 (ASAP) 교육, 1년간 집행유예와 \$250-\$2,500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만약 BAC 수치가 0.15-0.20 일 경우에는 위의 처벌을 포함하고, 아울러 5일 구류 처분을 받으며, 자동차 점화 연동장치를 최소 6개월간 설치하여 시동을 걸때마다 음주 테스트를 해야한다. 만약 BAC 수치가 0.2를 넘으면 위의 모든 처벌을 포함하고 아울러 의무적 10일 구류처분을 받게된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만약 음주테스트를 거부할 경우에도 음주테스트 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경찰의 판단에 강한 술냄새와 술취한 행동과 말, 그리고 부자유스로운 걸음걸이등,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을경우, 경찰이 법원에서 증언할수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 음주테스트를 거부하면 1년간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도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가사를 돌보기 위한 운전을 허용하는 제한된 운전면허조차 받을수 없게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음주테스트를 한 사람은 법원에 제한된 운전면허를 요구할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시 음주 테스트 거부는 결국 하나의 혐의를 더 추가 하는것을 뜻한다. 이럴경우 변호사는 검사측과 협상을 하여, 음주 운전을 인정하는 대신 음주 테스트 거부 혐의를 삭제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교통 형사사건만이 아니라 이민법상의 문제까지 야기할수 있다. 현재 영주권 신청계류자, 불체자,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것이 중요하다.